

터키에서 발견된 또하나의 폼페이

쥬그마

글/박응서 기자
gopoong@donga.com

사진/G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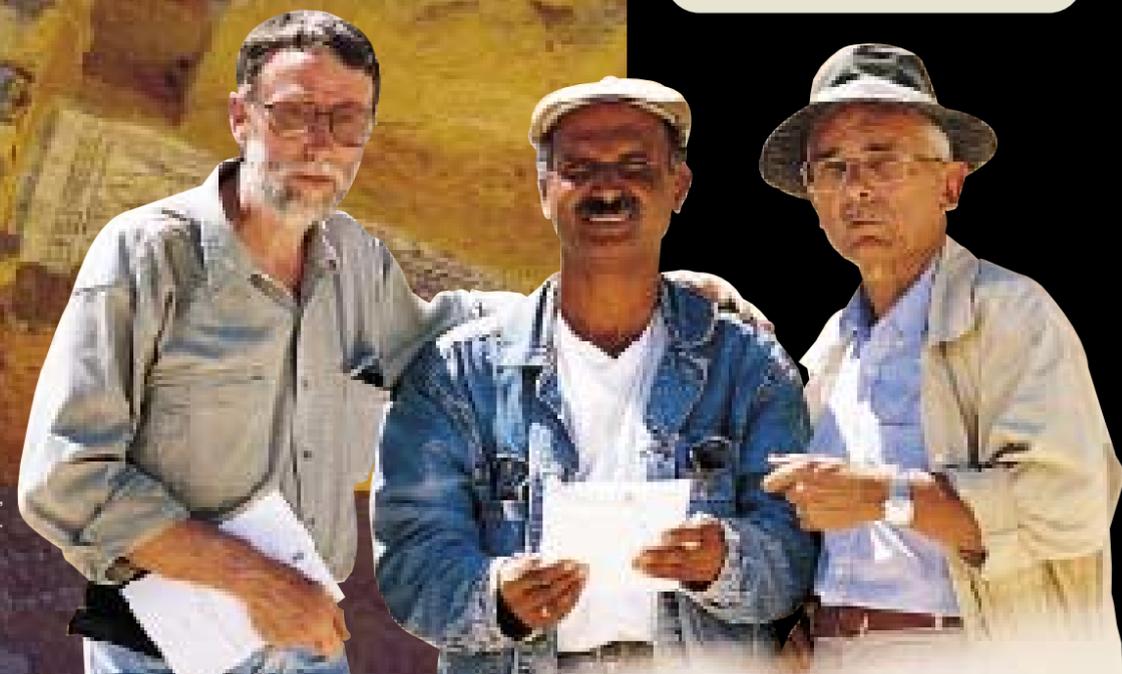
신들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간의 방자함이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일까. 서기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가 최후를 맞이했듯, 터키에서 발견된 쥬그마 역시 천재지변인 지진과 홍수로 진흙더미에 묻혀 또하나의 폼페이로 불린다.

폼페이가 그리스·로마 신화를 간직한 채 용암 속에 잠겼듯이, 쥬그마 역시 로마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담은 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1993년부터 고고학자들이 쥬그마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신화로 가득했던 도시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쥬그마 지역에서 1.5m의 신 마스(Mars) 동상과 수만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1999년에 수천㎡에 걸쳐 발견된, 헬레니즘 시대의 벽화 방식인 프레스코와 모자이크 작품들은 그 어느 곳의 유적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발굴이 진행중인 쥬그마 지역은 몇년 전부터 시작된 댐공사가 완료되자 1/3이 수몰되고 말았다. 10월이 되면 나머지 중 1/3이 마저 잠기게 된다. 전세계의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터키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 쥬그마가 간직한 많은 그리스·로마 신화는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됐다.

▶ 쥬그마 지역이 댐으로 인해 수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세계의 고고학자들. 왼쪽부터 데이비드 케네디, 메멧 오날, 피에르 르리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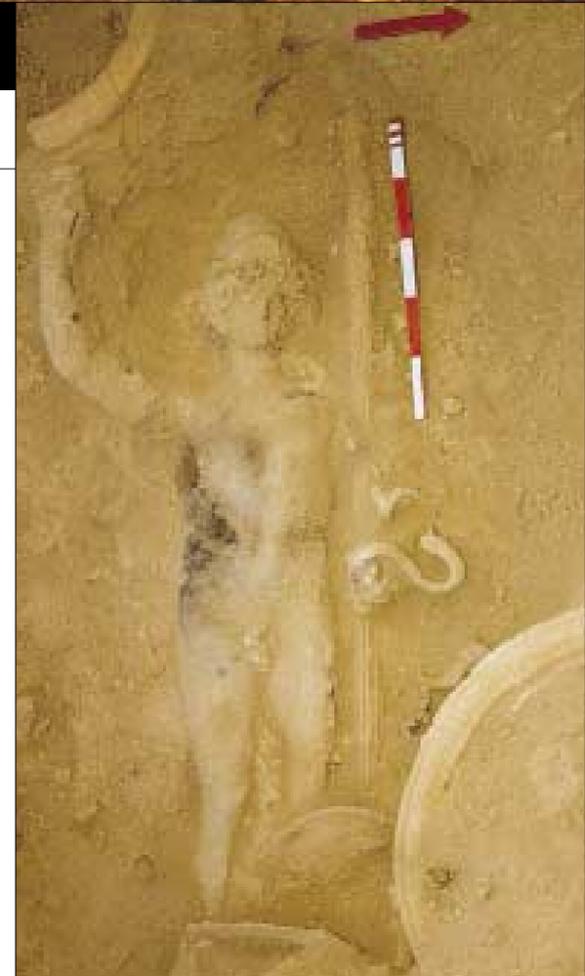


유적지에서 박물관으로 옮긴 신 마스 동상을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Z E U G M A



◀ 터키 북서부 부근에 위치해 있던 히사르리라는 마을 근처에서 트로이로 추정되는 옛 성터가 발견될 정도로 터키는 고대유적의 보고다. Zeugma 지역은 유프라테스강을 사이에 두고 로마제국과 페르시아제국을 연결해주는 경유지였다.
▶ 터키의 고고학자 유수프 아바스가 2000년 4월에 발견한 신 마스의 1.5m 동상.



Zeugma

동양과 서양 연결하는 요충지

Zeugma는 그리스어로 '다리' '고리'를 뜻한다. 4세기에 유프라테스 강둑에 건설된 도시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문화를 연결해주는 경유 도시다. 실크로드의 주요한 무대이자 그리스·로마의 서양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연결해주는 지역이다. 유프라테스에 위치한 Zeugma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로마제국, 동쪽은 페르시아제국이 위치했다.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는 2-3세기 동안 5천의 군사를 주둔시켜, 이 지역을 로마제국의 아시아 변방도시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현재 Zeugma가 각광을 받는 점은 고고학적인 가치 때문이다. 로마의 가옥들이 그렇듯이 폼페이와 Zeugma에도 맨벽을 밝게 칠하거나 벽화로 장식한 집들이 많았다. 이 벽화와 바닥에 디오니소스와 아킬레스 같은 고대신화와 인물을 드러내주는 독특한 모자이크 작품들이 발견됐다. 오리엔트 지역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로마도시의 모습이다. 로마 예술의 상당수는 그리스 예술을 모방했거나 그리스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로마인들도 사실적 흉상과 풍경화, 무엇보다도 건축을 통해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다. 제국시대의 웅장한 건축물만이 아니라 문명 생활의 '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로마인의 공적이다.

프레스코와 모자이크에 등장한 신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로마의 한 도시였던 Zeugma의 바닥과 벽에 등장한 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신화는 세계의 모든 민족과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 모두가 체험하는 공통의 표현이다.



이집트와 수단 지역을 지배했던 누비안 왕을 상징하는 오일램프.

헤라클레스 발자취 따른 영웅 테세우스

아테네를 지켜주는 영웅으로 후세에도 신처럼 숭배받는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유사한 모험을 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나면서 시작된 모험에서, 무수한 강도들을 제거했다. 또한 헤라클레스처럼 위험한 야생 멧돼지를 죽인 적도 있다. 특히 크레테의 황소는 헤라클레스의 모험과 그대로 일치한다. 언젠가 헤라클레스가 생포한 적이 있던 크레테의 황소를 사로잡아 오라는 명을 받은 테세우스는 크레테까지 가서 무사히 황소를 생포하는데 성공한다.

이 테세우스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크레테의 모험이다. 크레테 미노스왕의 요구에 따라 아테네 사람들은 9년마다 한번씩 7명의 아테네 남녀를 미노르타우로스라는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미노르타우로스는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와 크레테의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우의 괴물이다.

테세우스는 이러한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제물 7명 중 한사람으로 크레테까지 건너온다. 테세우스가 크레테로 출발하기 전, 그의 아버지 아이기우스는 아들에게 성공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배의 검은 돛을 하얀 돛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이 영웅에게 매혹돼 직접 나서서 다이달로스의 도움을 주선한다. 다이달로스는 미노르타우로스가 갇혀있는 미궁 라비린토스를 설계한 건축가다. 테세우스가 미노르타우로스를 죽인 다음, 미노르타우로스가 갇혀 있던 미궁 라비린토스를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것이다. 이에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이고, 미궁을 성공적으로 빠져 나와 아테네로 돌아온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그만 돛을 바꿔 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검은 돛을 달고 다가오는 배를 보고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아테네 성벽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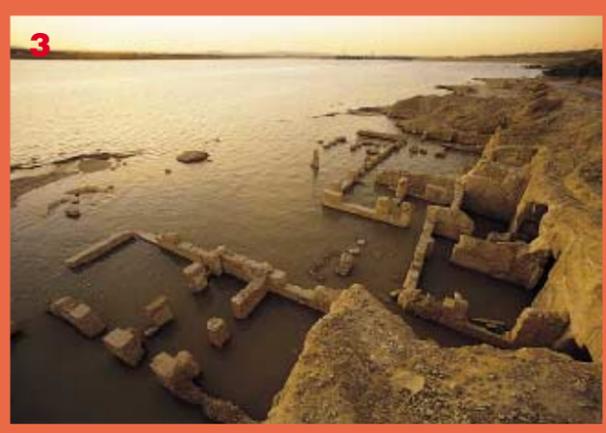


쥬그마에서 매우 선명한 상태가 유지된 80m²의 대형 모자이크가 발굴됐다(위). 이 작품을 바닥에 배치해 로마시대 건물의 내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했다(왼쪽). 그림 속의 신화는 유명한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오른쪽 두번째)와 아들 이카루스(제일 오른쪽)가 여왕 파시파에(제일 왼쪽 여인)를 위해 나무로 된 황소를 만들고 있다. 황소 머리 옆에 앉은 사랑의 신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겨누고 있다.

신의 제왕 제우스(윗그림 오른쪽)에게 이끌리고 있는 안티오페(왼쪽), 돌사이에서 쌍둥이 형제 암피온과 제토스가 태어났다. 안티오페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여전사들의 부족인 아마존족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이름이기도 하다. 또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는 그녀를 납치해 아내로 삼았다고도 한다. 아래는 바다사자를 타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요정 갈라테아.



Z E U G M A



쥬그마

짧지만 영웅의 운명을 선택한 아킬레스

인간의 운명이 신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항상 논란거리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화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운명은 여러 갈래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영웅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킬레스의 선택이다.

만약 아킬레스가 트로이전쟁에 참가한다면 죽게 된다는 신의 계시를 들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자로 변장시켰다. 하지만 그리스군이 패배를 거듭하고, 절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죽자 그는 전쟁에 참여할 지를 선택할 운명에 처한다.

고향에 남아 있는 편을 선택한다면 장수를 누릴 수 있다. 반면 트로이에서 싸우는 편을 택한다면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두가지의 운명이 주어졌다. 이처럼 아킬레스의 운명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 자신이 선택을 해야 비로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나오는 조건적 운명이다.

아킬레스는 발뚱꿈치에 화살을 맞고서 결국 트로이 성문 앞에서 죽게 된다. 인간의 모습인 아들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테티스는 신성한 스틱스 강물에 담궜다. 하지만 그녀가 잡고 있었던 발꿈치만은 물에 젖지 않아서 그의 약점이 됐다. 여기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겼다. 1

- 1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스의 모험을 담은 모자이크.
- 2 바다와 강의 신 포세이돈이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 주위로 25가지의 바다와 강의 생물들이 감싸고 있다. 아래는 제우스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 3 완공된 댐에 물이 차면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쥬그마의 유적지.